근현대 비구니 선지식 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대행선연구원 6월 17일 제7회 학술대회

대행·인홍·봉려관 스님 등 조명
근현대 비구니 사상, 활동 살펴
묘공학술상 등 진흥사업도 추진
3월 18일 올해 첫 계절발표회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비구니 선지식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올해 사업계획 전반을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이 밝힌 사업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6월 17일 동국대(예정)에서 열리는 제7회 학술대회다. '근현대 비구니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근현대 비구니 선지식들의 사상과 활동 전반을 조명한다.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묘공당 대행 선사에 대해 살피며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제주불교 재건의 주역 봉려관 스님을 조명한다. 경완 스님(동국대)은 일엽 스님의 선사상과 문화활동을, 여현 스님(동국대)은 유활문도회의 수장으로 수행에 매진한 담연당 선경 스님의 선사상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일중 스님(동국대)은 가지산 인홍 스님의 삶과 선사상을 살피며, 전영숙 한국비구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세계 유일 비구니 종단 보문종을 창종한 은영 스님의 생애를 조명한다.

이와 함께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행선연구원의 학술공모사업도 추진된다.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공모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묘공학술상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와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는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7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이뤄진다. 응모자격은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이다.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대행선연구원은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를 연2회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한마음연구〉는 연중 논문을 접수받고 있으며, 투고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다. 이와함께 대행선연구원은 오는 3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올해 첫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대면과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논〉(論軌, Vādavidhi)은 외도의 궤변인가? -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동광 스님, 동국대)'와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대행 선사 게송, 선시의 문학적 탐색(김종진, 동국대)'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권서용(부산대), 강형철(동국대 WISE캠퍼스), 백원기(동방문화대학원대학), 하정수(동국대)가 참여한다.

또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도 이뤄진다. 이날에는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이 '혜근이 받든 대행 선사의 가르침'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3·6·9·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印초기불교미술' 면면 살필 전시회 열린다

국립중앙博, 올 주요사업 발표
12월 美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인도 초기불교미술'展 예정돼

올 하반기 인도 초기불교미술 면면을 살필 대형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월 22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2월 22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대형 기획전시인 '나무와 뱀, 인도 초기불교미술(가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 아마라바티 고고학박물관 등 4개국 20개 기관이 112점의 초기불교미술 문화재를 출품한다. 특히 '인도 초기불교미술'을 주제로 국내에서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불상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최초의 불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전시"라며 "인도 초기의 자연신 신앙, 사리 숭배와 석가모니의 삶에 대한 관심, 불교 교단의 후원자 등 초기 불교미술의 형성 과정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 전을 개최한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소장품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로, 보티첼리·라파엘·카라바조·렘브란트·마네·모네·반 고흐의 작품 등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의 명화 52점이 출품된다.

이와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취약계층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국립박물관 새로운 연구과제 선정, 본격 연구 추진 △고구려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ICT와 문화유산 융합 지능형 서비스 기술 개발 및 활용 △국립박물관 전시용어 개선사업 성과 활용 확대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주요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 모두가 다양한 문화와 예술 체험을 통해 삶이 여유로울 수 있도록 '쉼 이 있는 박물관',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튀르키예 위해 1억 원 전달

2월 21일, 주한 대사관에
7000만 원상당 구호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이 참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천태종은 2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천태종을 대표해 사회부장 개문 스님, 사회국장 자운 스님, 사회과장 문법 스님, 나누며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특히 이번 구호금은 천태종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십시일반 모연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전달식에서 사회부장 개문 스님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로 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하루아침에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해 기도드린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난국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에 주한 튀르키예 무랏 타메르(Murat Tamer) 대사는 "튀르키예는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병력이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현재 대한민국도 실리를 계산하지 않고 형제국가로서 돕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시민 한 명 한명이 한 마음으로 튀르키예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있다. 특히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강하게 일어선 것처럼 튀르키예도 보내주신 응원과 도움으로 아픔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태종은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관문사에서 긴급 구호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천태종 산하 나누며하나되기와 신도들이 마련한 구호물품은 마스크 20만장·손 소독제 5000개·의류 1500점·수건 900점 등으로 금액으로는 약 7000만 원에 상당이다. 2.5톤 트럭 2대에 실린 구호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한 인천의 물류창고로 전달돼 터키항공을 통해 현지로 운송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영양 가득 점심으로 건강한 새봄 맞길"

보인 스님, 종교복지협회장 취임
탑골공원서 무료 점심배식 봉사

"영양 가득 점심드시고 건강한 새봄 맞이하세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보인)은 2월 22일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정을 나눴다.

이날 배식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제26대 신임회장 취임을 기념하며 진행됐다.

보인 스님은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음식을 담아 전하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라"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이날 점심공양 메뉴는 불고기 정식. 김치에 시금치 무침까지 함께 담아 한 끼 식사로 든든할 뿐 아니라 영양소까지 골고루 갖췄다. 보인 스님은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면서 "오늘 준비한 불고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새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산림경영인협 MOU

2월 21일, 협력 및 교류강화 약속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동환)이 2월 21일에 관내 문화체험실에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세종·충남지회와 사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기관 간 상호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활동 △산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장 △실습장 등 사용시설지원 △전문성 갖춘 산림교육전문가 활용 및 교류 △직원 연수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에서는 '유아숲지도사 과정'을 진행한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동환 스님은 "산림 산업은 한국 전통불교문화와 예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아숲지도자 과정 운영으로 세종시의 어린이들이 전월산의 자연을 만끽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찾아오는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는 돈이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미션으로 임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서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 8월 세종시 세종동에 문을 연 문화체험관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MOU를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法寶宗刹 海印寺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계종 인재 산실의 명문**

불기2567(2023)년도 **해인사승가대학** 입학 모집 안내

해인사승가대학







모집대상
편입생·재입학생 : 3명 신입생 : 10명

전형방법
●신입생 입방대기 시작일 : 불기2567(2023)년 3월 10일(금)
●서 류 접 수 : 불기2567(2023)년 3월 17일(금) 오후 2시
●입방갈마 일시 : 불기2567(2023)년 3월 18일(토) 오전 8시
●합 격 자 발 표 : 불기2567(2023)년 3월 18일(토) 오후 4시
●입 학 식 : 불기2567(2023)년 3월 19일(일)

특전
1. 신입생 전원에게 노트북 지급
2. 전 학년 해외성지순례 (인도, 바티칸, 태국, 일본)를 통하여 신심과 원력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탁실라프로젝트]를 통해 학인 개인이 추구하는 교육, 언어,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
4. [펀잡아츠(문화예술활동)]을 통해 1년에 4차례 문화예술 체험 및 활동을 전액 지원
5. [AI부디즘 프로제트]를 통해 디지털 및 메타교육의 전액 지원 및 해외 유학을 지원
6.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선택과 필수로 나누어 매주 2회 시행
7. 하나조노대학(일본), 법고산대학(대만), 칭화대학(중국)은 학술 교류 협정을 통해 졸업자 (고졸 동등 학력자 포함)에게 대학원 진학의 기회 우선 제공

해인사승가대학 프로그램
1. 해인사승가대학 토론대회 개최
2. 탁실라 프로젝트(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후원)
3. 각 학년 성지순례(바티칸, 인도, 대만, 일본 등)
4. 펀잡아츠(1년 4차례 문화예술활동)
5. AI부디즘 프로젝트(디지털, 메타교육 및 해외유학 지원)
6.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 지원

구비서류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부
2. 자기소개서(자필-6하원칙) 1부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본적 확인용) 각 1부
5. 건강진단서(행자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 제외) 1부
6. 은사스님 추천서 1부
7. 은사스님 인적사항 1부
법명, 본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8. 승가대학 학력 이수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4, 만의가사 복장) 3매, 여권사진 2매(여권발급용)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도장(법명)
3. 입방 후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승가대학(필수사항)

문의 502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승가대학 승가대학 관음전 T (055)934-3081, 3100